

삼층탑(아스카 시대 국보)

일본의 불교 사원에서 탑은, 석가모니의 유골(사리)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. 호키지 절의 장엄한 삼층탑은 높이가 약 24m이며 아스카 시대(593~710년)의 건축 양식을 현재에 알려주는 귀중한 건축물입니다. 또한 706년에 건립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삼층탑이자, 호키지 절이 창건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. 예전에는 지붕 위에 서 있는 상륜의 토대 부분(노반)에 쇼토쿠 태자(574~622년)가 아들 야마시로노 오에 황자(~643년)에게 오카모토노미야 궁을 불교 사원으로 삼도록 유언한 것 등이 적힌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.

이 탑은 호류지 절의 오층탑을 모방했지만, 호류지 절의 배치와는 대조적으로 금당(현존하지 않음) 동쪽에 세워져 있습니다.